

도교육청, 태풍 대비 비상체제 돌입

소멸시까지 상황관리전담반 운영... 재난상황 접수·긴급 대응 개학한 학교 51곳에 태풍피해 예상될 경우 학사일정 조정 권장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상황관리전담반을 편성, 지난 9일 오후부터 가동해 들어갔다고 밝혔다. 상황관리전담반은 관련부서와 협력

해 태풍 소멸시까지 운영하며 주·야간 비상근무를 통해 재난상황 접수 및 긴급시설 복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상황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도 별도 대책반을 조직해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7일부터 학교 및 교육기관 관련 비탈면과 응벽 등 취약시설과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태풍으로 인한 피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해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특히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시설에 대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포 설치 등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조치했다. 현재 도내 대다수 학교가 방학중이지만 개학한 51개 학교에 대해서는 태풍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학사일정 조정을 권장했다. 이에 따라

총 15교(휴업 7교 개학연기 2교 등)로 조정 6교)가 학사일정을 조정했다. 단위학교에서도 교육시설 점검, 방과 후·돌봄 수업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도내 학교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또다시 강력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대비와 상황관리를 통해 교육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학교시설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다문화가정 학부모 학교교육 이해자료 제작

도교육청, 10개 언어로 제작 교육제도·학생지원 등 담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학교교육 이해자료를 제작·배포한다. 이번에 제작한 자료는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들을 위한 안내서로 한국어를 포함한 10개의 언어로 번역·제작했으며,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한국 교육제도와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제작에 앞서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작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등 이해자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 교육제도 및 학교생활 △전북도교육청 학생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학부모 도움자료 △학교 및 교육청 누리집 번역 기능 활용 매뉴얼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도교육청은 향후 이해자료를 활용한 14개 시·군지역별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육지원청 및 도내 학교에 배포해 학부모교육 및 중도입국·외국인 가정 학생 편입학 상담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이해자료가 자녀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공교육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폐역식까지 안전하고 유익하게”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스카우트 캠프에 참가한 전북 학생들을 격려했다. 서 교육감은 10일 도내 캠프에 참가 학생 30명이 참여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공주대학교 기숙사를 방문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폐역식까지 안전하게 유익한 활동을 이어가길”고 당부했다.

전북대, 체류 중 스카우트 대원 전폭 지원

전 일정 숙식·통역·의료지원... 할랄 식사도 제공 '감동' 선물 한전 전북본부도 수건 900장·여행용 세면도구 900개 등 제공

세계스카우트 캠프에 참가 대원 800여 명이 머물고 있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이들에게 숙식과 문화체험, 의료서비스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대원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다. 전북대는 세계스카우트 캠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부터 대학 자체적으로 'JNU 새만금 캠프 지원단'을 구성해 숙박과 식사, 통역, 상시적 의료지원 체계 등을 확립하고 8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8일부터 전북대에는 포르투갈과 말

레이시아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이 체류 중인 생활관에 머물고 있다. 전북대는 8일 점심부터 이들에게 간편식을 비롯한 뷔페 등을 생활관 식당에서 전 일정 제공하고 있다. 전북대 응급의학과와 전북대 보건진료소 등에서 생활관에 응급 의료소를 설치, 전북대병원 응급의학과 김소은 교수 등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이들의 건강도 상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전북대는 할랄푸드도 필요한 말레이시아 청소년들을 위해 따로 할랄푸드까지 공수해 제공하는 등 전북대를 찾은 해외 청소년들에게 좋은 인

상을 남기고 있다. 전북대는 10일 오후 8시 삼성문화회관에서 캠프 참가 단원들을 위한 'JNU 문화페스티벌'도 자체적으로 마련해 전북대 학생들의 공연과 캠프리단의 장기지랑 등으로 아우러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같은 전북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한국전력 전북본부 역시 9일 대학을 찾아 캠프 대원들을 위해 수건 900장과 여행용 세면도구 900개를 제공했다. 한국전력 전북본부는 전북대에 머무는 캠프 대원들의 마음이 무거운 상황인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전북대에서의 안정적인 체류에 힘을 보태고자 이번 생필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차별의 역사와 공동체 관리'

전주대·조선시대사학회 공동 학술대회 18일 개최 1·2부 걸쳐 진행... 미래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 모색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HK+연구단은 조선시대사학회와 '차별의 역사와 공동체 관리'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과 조선시대사학회(회장 송양섭)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국내 학술대회는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전주대 진리관 성연홀(307호)에서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HK+연구단 단장인 변주승 교수와 조선시대사학회 회장 송양섭(고려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송정현(전주대) 교수 사회로 1·2부에 걸쳐 총 5개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학술대회 1부는 조선 후기 부세 운영상에서 발생한 차별과 대책이라는 문광균(충남 역사연구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1888~1889년 자인현감 오홍묵의 지방통치와 기민구제'라는 주제로 이행묵(고려대)이 '동학농민전쟁기 경상도

의 향촌 안정책과 향촌 질서'라는 주제로 송진현(경북대)의 발표가 진행된다. 토론은 박변(공주대), 엄기석(동국대), 문경득(전주대)이 참여한다. 2부는 1920~30년대 세민 생활 상태조사와 구조 없는 구제'라는 주제로 박선영(전주대)의 발표와 '일제강점기 조선기독교회의 자립교회 비판'이라는 주제로 김정화(전주대)의 발표가 진행된다. 토론은 김기성(군산대), 이희을(경북대)이 맡는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육(순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모든 발표자와 토론자가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국내 학술대회를 통해 전근대사회부터 근대 시기까지 차별과 공동체 관리를 중심으로 그 역사적 탐구를 통해 앞으로 미래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도교육청, 시범지원청·선도학교 등 지정... 3년간 운영키로 '교육부 시범지원청' 전주·군산 교육지원청 담당자 협의회 시범교육지원청 예산운용 체계·내년도 사업계획 등 논의

전북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교육부 시범지원청으로 지정된 전주·군산 교육지원청 담당자 협의회를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이행하고자 운영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시범지원청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체는 국정과제중 하나로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신청·접수·진단·지원·관리를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사업 중심의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학생 지원을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새롭게 도입한 정책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교육청에서는 시범지원청 2개, 교육부 선도학교 2교, 시도지정 선도학교 1교를 지정하고, 3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도교육청 담당자 시범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시범교육지원청의 예산 운용 체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지원 방안, 2024년 시범지원청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학교-지역사회의 모든 지원을 연계해서 학생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면서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점차 단위학교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